

# 아리셀 참사 유족들, 기자간담회서 억울한 심경 터져나와 "진상규명하고 사과하라"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4.07.18 09:37

사측 주장 F4비자 단순노무직 불법 취업, 실상은...  
민변이 주관한 '추모와 다짐'의 시민추모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18일 화성시청에서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와 희생자 가족들이 주최하는 기자간담회가 25개 매체, 40여 명의 언론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희생자 가족은 참사 이후 보낸 24일의 시간 동안 쌓인 한과 억울함을 토로하며, 복받치는 마음에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희생자 가족들은 가해자인 에스코넥·아리셀이 보이는 위선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과 책임당국 관계자들이 언론의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말한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참사 이후 시간이 경과하며 조장되는 혐오와 차별, 거짓 선동 등에 대한 강한 성토가 빚발쳤다.

대책위 법률지원단은 에스코넥·아리셀이 교섭을 회피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개별 합의'를 증용하는 보상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보충 설명이 진행됐다.

기자간담회는 “가해자인 에스코넥·아리셀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의 속도를 높일 것, 경기도 등 행정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마무리 됐다.



18일 추모와 다짐의 시민추모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주관했다. 사진=백승호

### 에스코넥·아리셀이 주장하는 F4비자의 단순노무직 불법 취업, 실상은...

에스코넥·아리셀이 희생자 가족에게 보낸 보상 관련 문자에 희생자들의 비자 문제를 거론하며, F4 비자의 단순노무직 취업이 불법이라며 한국 내 취업 기간을 7년으로 산정해 보상금액을 제시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 법률지원단은 이에 대해 “실제 희생자들이 어떤 업무에 종사했는지, 고용 관계는 어떠했는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도 회사는 묵묵부답”이라며 비판하고 “희생자들은 회사가 시키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 업무인지, 불법 업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냐? 심지어 회사가 단순 업무만 시켰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 입증은 회사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만약 일부 희생자들이 단순 노무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회사가 이를 근거로 보상금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어긋나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게 대책위 법률지원단원 설명이다.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언도 나왔다. 고 강금복 님의 유족 문영생 님은 “포장업무는 보름에 한 번 정도만 지원 근무를 갔었던 것이고, 어디 인력사무소 가서 계약서 쓰고 간 것도 아니고, 카톡으로 연결, 연결되어서 소개받고 간 것이고, 출퇴근은 시 흥에서 모여서 회사 버스로 한꺼번에 출,퇴근했다”라고 하며 회사의 주장과는 다른 발언을 했다.



18일 추모와 다짐의 시민추모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주관했다. 사진=백승호



18일 추모와 다짐의 시민추모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주관했다. 사진=백승호

## 민변이 주관한 '추모와 다짐'의 시민추모제

이날 시민추모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주관했다. 윤복남 변호사(민변 회장)는 “참사 희생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주 유가족들이 고소, 고발을 진행했다. 위험한 현장에서 희생자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웅변하고 있다. 사용자는 그 어떤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 한 해 백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안전보건에서 차별은 있을 수 없다. 민변이 여러분 곁에서 법률지원단 활동으로 함께 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유희종 본부장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반복되는 참사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기업살인을 막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불법파견이 원인이 되어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다.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정부는 요란하게 재발 방지를 말하지만 이는 말뿐이다. 이번 참사를 보고서도 여전히 기업에 특혜를 주는 '특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자본가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정부를 그냥 두지 않겠다. 세종충남지역의 노동자들이 여러 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희생자 고 김지현 님의 어머니이자 고 이향단 님의 이모인 유족 지경옥 님은 “대학, 대학원을 마친 아이들이 큰 꿈을 펼치기 위해 한국에서 시작한 첫 번째 직장이 아리셀 이었다.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다. 얼마 전 사측의 보상안이라는 걸 받아 보았다. 차별이 넘쳐 나는 안이었다. 박순관 대표에게 말한다. 제발 인간이 되어라”라며 가슴을 쳤다.



18일 추모와 다짐의 시민추모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주관했다. 사진=백승호



18일 추모와 다짐의 시민추모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주관했다. 사진=백승호

최종현 변호사는 “사람이 죽었다. 일하다 죽었다. 가해자인 사측은 교섭과 관련해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개별 합의’만을 시도하고 있다. 비자의 종류로 차별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보다 모욕적일 수 있나? 어떤 안전 교육도 없이 노동자를 위험한 현장, 위험한 공정으로 밀어 넣은 사람이 누구인가? 유가족들에게 약속한다.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변호사들이 있다. 김&장과 싸워 이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다. 우리의 연대와 생명안전을 위한 염원으로 반드시 회사에 책임을 묻고 이길 것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며 위로했다.

국회 환노위 이용우 의원은 “이번 참사는 회사의 불법과 국가 정책의 부실과 부재가 만든 결과이다. 늦었지만 실효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취하겠다. 관련 부처에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와 조사에 대해 희생자 가족에게 공유해 달라 요구했고 사측과 교섭이 열릴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 가족 지원 연장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라 요구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 다음주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원들과 이곳을 방문하는 것과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상황을 반전시키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문화제를 주관하고 함께 참여한 변호사들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추모의 국화 대신 피해자와 변호사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하는 싸우는 관계를 나타내고 싶다는 준비한 장미를 한 송이씩 전달하며 추모제를 마무리했다.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